

漁港消息

발행경인 孫井植 편집인 金在克 인쇄인 金在克

社團 韓國漁港協會 法人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 544-0610 544-0611

月刊: 비매품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2월19일

訓會 誠實 奉仕 創意

漁港基盤 擴充으로 福祉漁村건설

'90年 漁港건설豫算確定

6百20億2千1百萬원 올해보다 13%增額

제147회 정기국회가 지난 12월19일 ... 년도 어항예산이 6백20억2천1백22만 ... 8천원으로 확정됐다.

'90年度 豫算規模 (單位: m, 百萬元, %)

Table with columns for '89 豫算, '90 豫算(案), 增△減, and 比率. Rows include 計, 1·3種漁港, 一般港, 海域別據點港, 2種漁港, and 事業支援費.

* []는 國庫債務額 內書

漁港開發計劃 (單位: m)

Table with columns for 總所要, '89까지, '90, and '91以後. Rows include 計, 1·3種港, and 2種港.

漁港指定基準

Table with columns for 第1種, 第2種, and 第3種. Rows include 地先漁船利用, 他地方漁船利用, and 年間漁獲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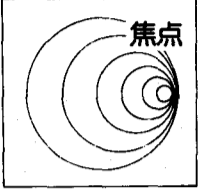
수출액이 90년도 어항건설 예산의 1/3에 달하는 ... 4,700 ... 2,200 ...

1·3種港 5百80億, 2種港 39億지원

우선基本施設완공

試鍊·克服·團合의 한해

韓國漁港協會 己巳年 회고



1988년은 ... 韓國漁港協會 ... 己巳年 회고 ...

한국어 ... 韓國漁港協會 ... 己巳年 회고 ...

한국어 ... 韓國漁港協會 ... 己巳年 회고 ...

한국어 ... 韓國漁港協會 ... 己巳年 회고 ...

한국어 ... 韓國漁港協會 ... 己巳年 회고 ...

한국어 ... 韓國漁港協會 ... 己巳年 회고 ...

한국어 ... 韓國漁港協會 ... 己巳年 회고 ...

한국어 ... 韓國漁港協會 ... 己巳年 회고 ...

第2回 漁港사진公募當選作 발표

우선회원의 정성부담이 ... 2000원 ... 4500원 ...

漁港내 漁業權 정리

정리된 ... 漁業權 정리 ...

漁船入出항지정

정해진 ... 漁船入出항지정 ...

港種서정비

정해진 ... 港種서정비 ...

意見을 전하

정해진 ... 意見을 전하 ...

Advertisement for 漁港會館 建立基金을募金합니다. Includes details about membership and contact information.

小黒山島港확대개발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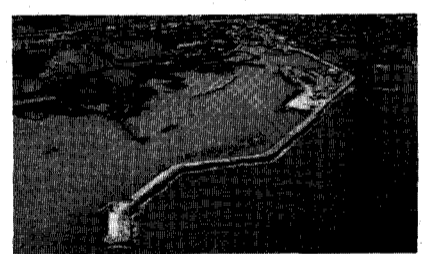
어선待避기능切實, 投資効果도커

9億9百萬원으로 防波堤42m를築造

수산청(수산해양진흥관리위원회)은 전남소흑산도를 관광수출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흑산도항을 확대개발키로 확정했다. 수산청의 소흑산도항 개발

확대개발은 전남소흑산도항에 대한 관광수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산청이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개발공사, 한국관광진흥공사, 한국관광진흥재단, 한국관광진흥회, 한국관광진흥협회, 한국관광진흥협회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현재 소흑산도의 어선으로 12척의 어선이 출항하고 있다. 대피기능이 미흡한 어선들이 출항과 귀항 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이와 따라 수산청이 소흑산도항 방파제하부 42m 폭에 9억9,900만원의 투자로 방파제 4천4백50m(4.5km)를 건설할 예정이다.

外煙島港복구 工事契約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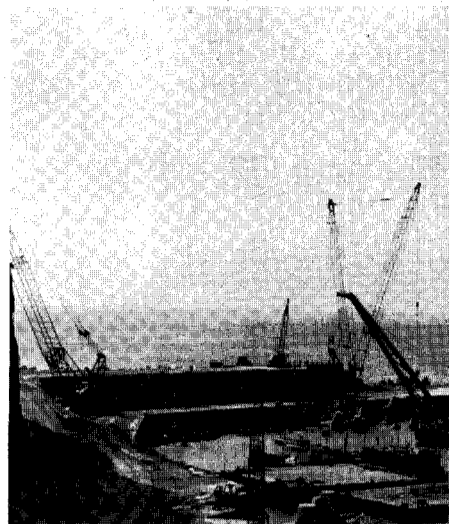
수산청(수산해양진흥관리위원회)은 전남소흑산도를 관광수출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흑산도항을 확대개발키로 확정했다. 수산청의 소흑산도항 개발

확대개발은 전남소흑산도항에 대한 관광수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산청이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개발공사, 한국관광진흥공사, 한국관광진흥재단, 한국관광진흥회, 한국관광진흥협회, 한국관광진흥협회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수산청(수산해양진흥관리위원회)은 전남소흑산도를 관광수출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흑산도항을 확대개발키로 확정했다. 수산청의 소흑산도항 개발

第2次「韓國의漁港」화보製作

全南 9곳·濟州 4곳漁港 항공사진收錄



한국관광진흥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제2차 「韓國의漁港」 화보제작을 수산청과 2천4백77만원의 계약, 전남 9개 항과 제주 4개항을 13개항을 수록했다.

한국관광진흥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제2차 「韓國의漁港」 화보제작을 수산청과 2천4백77만원의 계약, 전남 9개 항과 제주 4개항을 13개항을 수록했다.

한국관광진흥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제2차 「韓國의漁港」 화보제작을 수산청과 2천4백77만원의 계약, 전남 9개 항과 제주 4개항을 13개항을 수록했다.

한국관광진흥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제2차 「韓國의漁港」 화보제작을 수산청과 2천4백77만원의 계약, 전남 9개 항과 제주 4개항을 13개항을 수록했다.

韓國漁港協會주관 第2回漁港사진公募

當選작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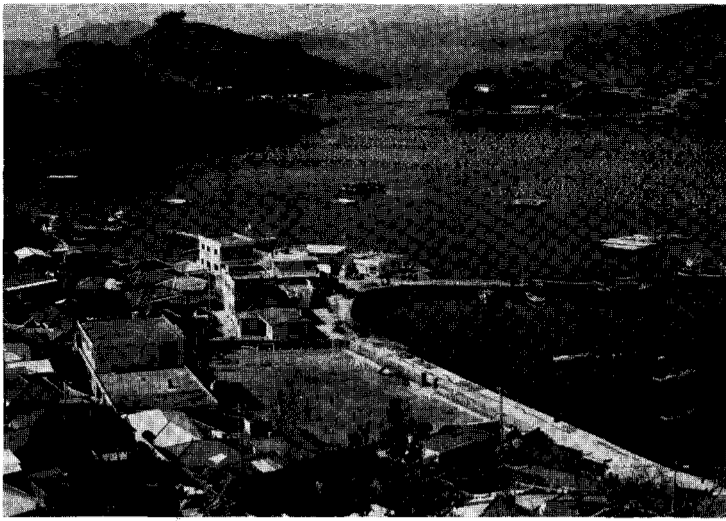
21시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시상식에서 21시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시상식에서

21시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시상식에서 21시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시상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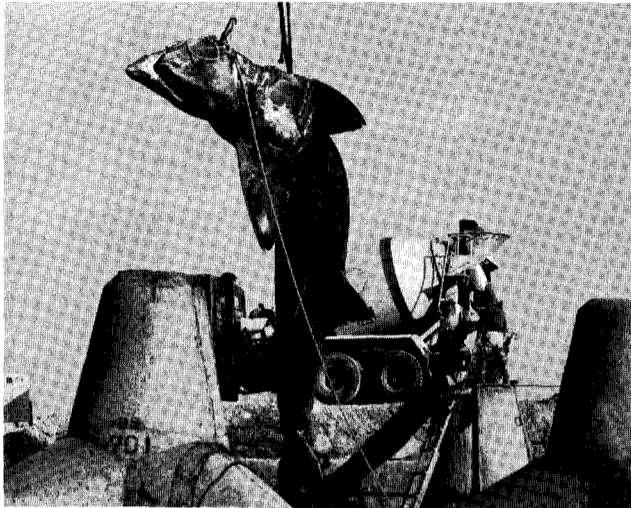
21시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시상식에서 21시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시상식에서

21시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시상식에서 21시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시상식에서

21시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시상식에서 21시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 시상식에서



■ 金賞: 새어촌



■ 銀賞: 힘과힘



■ 銅賞: 대 기



■ 銅賞: 협 동

“이제 삼호해파리로 아빠의 식욕을 돋구세요”

삼호해파리는 염장과 냉채용으로 요리용도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염장해파리

염장해파리는 양질의 해파리만을 엄선 특수 공법으로 제조하므로 맛과 영양이 보존되도록 위생적으로 가공되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기호에 맞게 오이, 햄, 어묵등을 넣고 소스에 버무려 즉석에서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리방법

해파리를 미지근한 물에 50분정도 담구어 염분을 제거한 후 맑은 물에 깨끗히 헹구어서 물기를 뺀후 설탕, 식초, 조미료를 섞은물에 20~30분간 담구어 간을 빼게한다. 냉장고에 채썰어 넣어둔 오이와 차가워진 해파리를 소스에 버무려낸다.

해파리냉채

해파리냉채는 양질의 해파리만을 엄선 특수공법으로 우리 입맛에 알맞게 탈염했기 때문에 맛과 향은 물론 즉석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훌륭한 건강 자연식품 입니다.

요리방법

오이를 채썰어 해파리와 함께 냉장고에 넣어 차게한 후 소스와 버무려 접시에 담아낸다. 기호에 따라 재료를 첨가해 드실 수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삼호물산주식회사 Samho Company Ltd.

부산 (051) 29-9113~5 대전 (042) 626-0035~6
대구 (053) 753-3501~2 광주 (062) 366-3521~3570

편육 제육 오리알 햄 새우알 전복 소라 게맛살 어묵
오이 배 토마토 샐러리 파슬리 죽순 숙주 당근
(향신료: 파 생강 오향 고추가루 참기름)



漁港計劃樹立の要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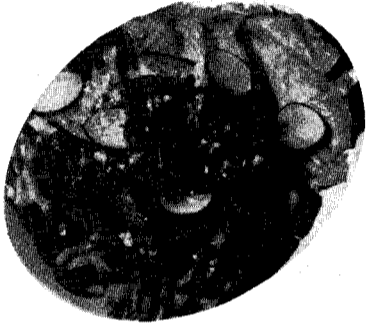
[7]

1-2 경제 및 사회조건 조사의 구분과 조사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사항목	조사결과와 이용범위
유통	유통	반입·반출량	·어종별 ·기간별(월·일) ·유통형태별 선어 냉동어 염건품 기타 (반입·반출수단, 반입·반출선별)	수송방법의 검토 수송시설의 검토 냉동고, 냉장고의 검토 가공장의 검토
			반입·반출수단 철도 보내차, 추력 어선 운반선 기타 - 양·시간·경비	수송방법의 검토
		유통관계자	·중매업자의수, 규모, 자본, 운송업자	어항의 이용형태의 검토
하물별	하물별	경매방법	·경매를 하는지 안하는지 ·경매회수 ·계약제가 있는지 ·경매방법, 표시방법	화물별장소, 양육안벽 배치 규모검토
		전시방법	·전품목제인지 전본제인지 ·전시형태 ·전시량(전시형태별, 어종별어체별)	
		소운반	·수단(일륜차, 벨트콘베아, 기타) ·수단별 운반량	
소비	소비	소비권	·소비지명과 소비지별 소요시간 ·단위당당 수송경비	수송방법의 검토
		소비형태	·생선, 보일, 꾸이 등 ·소비자의 기호	가공장의 검토
		소비량	·소비지별·기간(년, 월, 일) 별 소비량	생산량, 보관량, 소비량의 검토
		소비자	·소비자의 엔젤계수	소비동향의 검토
		수출입	수출입량	·수출입선별 ·품목별 ·기간(년, 월, 일)별 ·수출수단별

삼·치

횃감으로 많이 이용 건식가열해도 좋아



삼치(鱈)는 북극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으로, 건식가열(건조)하여 만든 횃감(魚乾)은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횃감을 많이 섭취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삼치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또한,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다.

삼치는 건식가열을 하면 맛과 영양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건식가열을 하면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해지고, 맛도 더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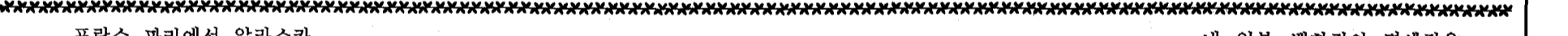
삼치 건식가열 횃감은 맛과 영양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건식가열을 하면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해지고, 맛도 더 좋아진다.

삼치는 건식가열을 하면 맛과 영양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건식가열을 하면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해지고, 맛도 더 좋아진다.

삼치 건식가열 횃감은 맛과 영양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건식가열을 하면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해지고, 맛도 더 좋아진다.

삼치는 건식가열을 하면 맛과 영양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건식가열을 하면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해지고, 맛도 더 좋아진다.

삼치 건식가열 횃감은 맛과 영양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건식가열을 하면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해지고, 맛도 더 좋아진다.



生·活·經·濟

生·活·經·濟

압박받는 '해외여행선물'

일이나 여행보다 선물때문에 더 곤혹

프랑스 파리에서 알라스카의 앵커리지공항으로 향하는 KAL점보기 안에서 종합무역상사 K과장은 깨알처럼 적어 놓은 수첩을 열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벨기에, 서독, 프랑스 등에서 20여일동안 세일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열두시간 남짓 후에는 서울에 도착, 귀여운 꼬마 녀석도 안아 볼 수 있을테니 느긋한 기분일 수 있을 텐데도 K과장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

K과장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때문에 창밖에 황홀하게 펼쳐지고 있는 북극의 백야(白夜)조차 구경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 지금 K과장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은 업무처리의 미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름아닌 여행선물이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그런대로 마련했고 여고를 갖 졸업한 조카가 특별히 주문한 해외드라이어도 모양 좋은 것으로 하나 사왔다.

K과장이 열심히 들여다 보고 있는 수첩에는 부탁 받은 물건들의 리스트가 적혀있고 지금 혹시나 빠진 것이 없는가를 재차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이 5, 6번째의 해외여행인 K과장이 처음으로 해외출장을 나갈 때는 선물때문에 적지않은 곤혹을 겪었다.

거의 빠뜨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귀국해서 선물을 나누어 주다보니 빠진 곳도 많고 이 때문에 가까운 친지나 동료들로부터 섭섭한 눈초리를 한두번 받은 게 아니다.

이번 여행만 해도 K과장이 주문받은 물건만 열댓가지나 된다. 여기에다 집안 친척들, 이웃집, 회사동료들에 대해 작으나마 성의표시를 해야만 할 사람도 줄잡아 20명이 넘는다.

사실 선물사는 시간이 세일즈 활동시간보다도 더 많았다고 해도 훨씬 더 들었다.

그때마다 다음에는 일체 선물을 사지 않으리라는 다짐도 해봤으나 허사였고, 이번 그의 두개 가방속에는 장난감, 화장품, 전자제품, 넥타이, 스카프, 비타민E 등으로 꽉 차 있는 것이다. 여행가방이 아니라 만물상자다.

흔히 모처럼의 해외여행을 잘 마치고는 바로 이 선물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예가 적지 않다.

K과장의 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김포공항 세관검사대는 차라리 화물터미널을 연상케 한다. 오직해야 짐 많은 사람은 별도통관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됐느냐는 생각마저 든다.

수시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S회사의 H이사는 이제 선물따위 걱정은 하지 않는

다. 파리나 홍콩, 뉴욕, 로스앤젤리스, 동경 등 세계 웬만한 도시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사는 선물용품 백화점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외국의 면세점 쇼윈도우에는 「한국말로 안내함」이라든가 서울에서 유행하는 품목들을 한국말로 적어놓기까지 한다.

이들 면세점에 들어가면

내 일부 백화점의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할가분하게 하기 위해 미리 국내에서 사뒀버린다.

몇년전 일이지만 2백50여명의 민간교류단이 미국 워싱턴주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이 마을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심지어 바늘까지 가게에 있는 물건이 거의 동이 나버린 것이다. 민간교류단이 선물용으로 물건을 몽땅 사버린 것이다.

외국여행자들이 간단한 서류가방과 옷가방 정도만으로 여행하는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행은 즐거워야 한다. 그러나 즐거워야 할 여행이 선물 압박 때문에 고민해야 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선물이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해와는 달리 수출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여행자 한사람으로 따져서는 별것 아닌 돈일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보면 선물로 외국에서 뿌리는 달러는 엄청나다.

이제는 해외여행선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마지못해 아무렇게나 사다 주는 선물이 정성이 담겨질 리 없다.

받는사람도 부담스러울때 많아

